

부부 애정행동 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연구

장 재 흥[†]

중앙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부부관계를 촉진/방해하는 행동들을 측정하는 부부 애정행동 척도를 개발하고, 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애정관계행동척도와 부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통해 8개의 부부관계 행동차원을 추출하고, 이를 측정하는 64개의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기혼남녀 386명(여 241명, 남 14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64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과 문항 양호도 분석 과정을 거쳐서 43개의 최종적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석결과 43문항의 부부 애정행동 척도는 총 8개의 요인들로 구성되었으며, 이것은 전체 설명변량의 52.27%를 설명하였다. 각 요인은 애정표현, 친밀감, 보살핌의 긍정적 행동들과 공격, 통제, 거리두기, 성관계 회피, 과도한 요구로 명명하였다. 둘째, 8개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 α)는 .64~.89로 적합한 수준이었다. 셋째, 부부 애정행동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결혼불만족, 사랑의 삼각형척도와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부부 애정행동 척도의 긍정적 행동들은 결혼불만족과 부적상관을, 그리고 부정적 행동척도들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긍정적 행동들은 사랑의 삼각형 척도 하위요인인 친밀감, 열정, 투신과 중간정도의 정적상관을, 그리고 부정적 행동들은 적절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넷째, 이 척도가 배우자의 결혼불만족과 사랑의 3요소를 잘 예측하는지 검증한 결과, 남편 또는 부인의 애정행동 중 성적회피와 통제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방향의 상관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부 애정행동, 부부관계의 긍정적 행동, 부정적 행동, 결혼만족도, 사랑의 삼각형

[†] 교신저자 : 장재흥,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청소년전공
E-mail : jangih@cau.ac.kr. Tel : 02-820-5169.

부부관계는 혈연관계가 아니면서도 세상의 어떤 관계들보다 장기적이며 삶의 만족에 큰 영향을 주는 관계이다. 불행한 결혼생활은 부부 당사자들의 생활만족도와 정신건강(노은여, 권정혜, 1997)을 악화시키며, 자녀의 문제행동과 적응상의 문제(장진아, 신희천, 2006; Kerig, 1996; Gerad & Buehler, 1999)를 야기한다. 결혼의 파탄인 이혼은 2003년 정점을 이룬 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2,011년 현재 1,000명 중 2.2명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한다(통계청, 2011). 또한 이전보다 더 많은 부부들이 부부문제를 개선하고자 부부상담을 신청하고 있다.

부부관계를 연구한 많은 연구자들은 부부관계에서 주고받는 행동으로 결혼에서의 만족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 부부간의 행동에 주목해왔다. Maxwell(1985)은 사랑은 하나의 정서인 동시에 하나의 행동으로, 서로 주고받는 애정행동을 통해 사랑의 정서가 전달되고 느껴지게 된다고 애정행동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이현수(2001)는 특정인에 대한 태도라는 것은 3개의 구성요소-인념, 정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바, 이 중 명확히 관찰 가능한 요소는 행동요소이며, 태도는 관찰된 행동의 총화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였다.

많은 학자들(Jacobson & Margolin, 1979; Johnson & O'Leary, 1996; Wills, Weiss & Patterson, 1974)은 일상생활의 주고받는 부부행동들로 결혼만족의 상당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일례로 Wills, Weiss와 Patterson(1974)은 일상생활에서의 부부행동이 부부만족변량의 25%를 일관적으로 설명한다고 하였다. Johnson과 O'Leary(1996)는 82쌍의 부부에 대한 연구에서 파트너의 일상생활의 행동들이 매일의 결혼만족을 잘 예측하였고, 또한 행복한 부부와 불

행한 부부를 잘 변별한다고 하였다.

또한 부부관계에서의 행동들은 현재의 결혼만족뿐만 아니라 미래의 결혼불만족도 잘 예측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Gottman과 Krokoff(1989)는 실험실에서 평정된 부부의 행동패턴들이 3년 후의 결혼불만족을 잘 예측하는지 연구하였다. 그 결과 방어적 행동, 완고함, 그리고 상호작용에서 철수하는 행동들이 3년 후의 결혼불만족을 잘 예측하였다. 특히 남편의 완고하고 철수하는 행동은 결혼만족에 가장 해로운 것이었다. 또한 후속연구(Gottman & Levenson, 1992)에서, 상술한 부부 행동들은 4년 후의 부부관계의 파경(별거, 이혼)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 부부치료(Behavioral Couple therapy) 또한 부부관계의 불만족 원인을 그들의 행동에서 찾고 있다. 부부의 보살핌과 친밀행동과 같은 긍정적 행동의 빈도가 높으면 부부만족도가 높으며, 요구하기나 철수하기와 같은 부정적 행동의 빈도가 높을수록 부부만족도가 낮다(Christensen & Heave, 1990; Weiss & Heyman, 1990). 따라서 행동 부부치료에서는 이러한 부부간의 부정적 행동패턴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려고 하며, 의사소통훈련과 문제해결 기술을 가르치고 부부간의 보살피는 행동을 증가시키려 한다. 궁극적으로 부부 행동치료의 목적은 부부간의 상호작용에서 강화는 증가시키고 처벌은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부부 상호작용을 재구성하는 것이다(Chernen & Friedman, 1993).

이외에도 다양한 치료접근들이 부부관계의 변화를 위해 행동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절충주의 부부치료의 한 사람인 Fraenkel(2009)은 부부관계 변화의 시작점(change entry point)으로 사고, 감정, 행동, 생리적 부분 등 다양한 측

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구조적 부부치료, 전략적 부부치료, 행동치료, 정서초점 치료접근에서 부부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를 개시할 수 있었다고 요약하였다. 예를 들어, 정서초점 부부치료(Emotionally Focused Couple Therapy)에서는 해결되지 못한 부부의 원가족에서의 애착문제로 인해 부부간의 부정적 행동이 일어난다고 본다. 그리고 부부문제를 개선하는 방식은 파트너의 정서적 경험에 접근하여 그것을 재처리하는 동시에, 부부관계의 상호작용패턴을 보다 건설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려고 한다(Johnson & Greenberg, 1998).

이렇듯 부부간의 부정적 교류와 행동들을 부부치료의 1차 목표로 삼을 것인지 혹은 부차적 목표로 삼을 것인지는 접근법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부부치료 접근들에서 부부간의 상호교류 행동을 살피고 이를 개선하려 시도한다.

한편, 지금까지 개발된 부부행동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부부간의 의사소통과정에서 부부의 행동을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부부행동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부부간의 의사소통과정을 측정하는 질문지에는 부부의사소통질문지(Communication Patterns Questionnaire; Christensen & Sullaway, 1984), 의사소통효율성 척도(Marital Communication Inventory, Bienvenu, 1970), 부부의사소통 검사(Primary Communication Inventory, Locke, Sabaght, & Thomes, 1967),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척도(Gottman, 1994), 그리고 국내에서 개발된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척도(권윤아, 김득성, 2002) 등이 있다. 이 검사들은 대개 부부의 의사소통과정 중 부부갈등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데, 문항들은 의사소통과정에서 발생하

는 부부의 행동과 생각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된다. 또한 의사소통과정 중 일어나는 부부행동을 제 3자인 관찰자가 평정하는 방법들도 개발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Weiss와 Summers(1983)가 개발한 부부 상호작용 코드체계(Marital Interaction Coding System: MICS)이다. 이것은 훈련된 관찰자가 실험실상황에서 나타난 부부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29개의 행동목록에 대해 평정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일상생활에서의 부부행동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대개 제 3자인 관찰자나 혹은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평정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Wills, Weiss와 Patterson(1974)이 개발한 ‘배우자 관찰체크리스트(Spouse Observation Checklist)’이다. 이것은 14개의 부부 일상생활 영역(예를 들어, 의사소통, 애정, 동반자적 기능 등)에 대하여 400개의 행동목록의 빈도를 측정한다. 또한 Broderick(1981)은 배우자의 행동을 평정하는 ‘일일 부부행동 체크리스트(Daily Checklist of Marital Activities: DCMA)’를 개발하였는데, 이 체크리스트는 긍정적 행동 55문항과 부정적 행동 54문항, 총 10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Frosch와 Mangelsdorf(1998)의 ‘부부행동 관찰측정치(Observational Measures of Marital Behavior)’는 부부간에 발생하는 참여, 즐거움, 개인의 긍정적 정서표현, 짜증 등 언어적/비언어적 행동들을 측정한다.

한편, 부부의 일상적 행동을 측정하는 질문지법은 소수만 소개되고 있다. 국내에서 김진숙과 권석만(2010)은 Broderick(1981)의 문항을 참고하여 35문항의 한국판 부부행동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부부갈등 1사례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에서 이 척도를 사용하여 부부행동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갈등 중인 그 부부

는 일반 부부와 비교했을 때 부정적 행동의 빈도는 비슷했지만 긍정적 행동은 훨씬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사소통을 측정했던 질문지와 3자 관찰 평정법은 갈등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부부의 의사소통방식(예를 들어 비난, 경멸, 냉담, 방어: Gottman, 1999)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이 부부만족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목록은 주로 부부갈등과 불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예를 들어 문항은 '오랫동안 침묵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다. 즉 부부간의 긍정적 교류에 대한 문항들이 제외되어 측정할 수 없다.

한편, 일상적인 부부행동을 측정하는 체크리스트는 주로 배우자나 관찰자가 평정하는데, 평정에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 상담 장면에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무엇보다 배우자의 행동을 평정하는데 초점이 있어, 부부문제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지각하기보다 배우자의 행동 탓으로 책임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내 배우자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애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는 문항은 결혼불만족과는 분명히 관련이 있겠지만, 검사를 수행하는 당사자의 자기반성을 촉진하지는 못하여 상담장면에서 효용성이 떨어진다. 불행한 부부들이 자신들의 부부문제의 원인을 배우자 행동 탓으로 돌리고 비난하는 경향(Fincham, 1985)을 고려한다면, 부부상담에서 사용될 검사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도록 유도하는 검사일 필요가 있다.

또한 검사문항에 부부갈등을 초래하는 부정적 행동뿐만 아니라 부부의 애정과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행동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즉 어떤 행동이 부부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문항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Doss, Simpson와 Christensen(2004)은 부부치료에 참여한 147명에 대해 왜 치료에 참여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과 부인은 부부치료에 참여한 이유가 각기 달랐으며, 기존의 부부관계 질문지와 중첩되는 부분도 매우 적었다. 이에 대해서 Doss 등은 기존의 질문지들이 '무엇이 잘되어 가고 있나'를 묻기보다는 '무엇이 깨어져 있는가'에만 초점이 있었는데, 상담에 참여하는 부부들은 당면한 부부문제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들의 부부관계를 더 좋게 개선하는 등의 행복과 같은 이슈를 다루려 한다고 하였다. Gottman(1999) 또한 이혼을 예방하고 부부관계를 증진시키는 핵심은 부부사이에 부정적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긍정적 감정이 있어야 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최근 많은 학자(Fincham, Beach, & Kemp-Fincham, 1997; Fincham & Linfield, 1997; Johnson, White, Edwards, & Booth, 1986)들은 부부관계의 질이 단일차원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차원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Fincham, Beach와 Kemp-Fincham(1997)은 결혼에 대한 부정적 긍정적 평가는, 비록 둘이 상호관련이 높지만, 분리하여 개념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Johnson, White, Edwards와 Booth(1986)는 결혼관계에 대한 질문지들을 분석한 결과 부부관계의 질이 긍정적/부정적 차원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유사하게 Fincham과 Linfield(1997)는 결혼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검사들을 확인적 요인분석한 결과, 부부관계의 긍정적/부정적 차원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두 차원을 통해 전통적인 검사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부현상들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

다. 예를 들어 양가적이고(높은 긍정행동과 높은 부정행동) 무관심(낮은 긍정행동과 낮은 부정행동)한 부인은 전통적인 부부관계 검사에서는 점수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분명 상이한 부부행동과 상호작용 양상을 보인다.

이상의 개관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부부 애정행동을 측정하는데서, 긍정적/부정적 부부행동을 함께 포괄하며, 배우자의 행동이 아니라 평정자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하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척도는 자신의 부부갈등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부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긍정적/부정적 부부행동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보다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한편, 권희경, 장재홍과 권영민(2005)은 미혼 남녀의 애정관계를 촉진/방해하는 행동들을 평가하는 52문항의 애정관계 행동척도(Romantic Relationship Behavior Scale)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행동 3차원-보살핌, 신뢰, 호감표현 - 부정적 행동 5차원-긴장·위축, 공격행동, 친밀감 불편, 집착, 높은 보상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의 연구에서 이 척도는 성별에 따른 애정행동을 잘 설명하였고, 이성관계에서의 만족도와 적절한 상관크기를 보였다.

또한 장재홍(2006)에 따르면 이 척도는 이성교제의 경험수준에 따른 애정행동에서의 차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연인과 사랑하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파트너에 대한 보살핌과 신뢰가 높았다. 반면 연인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호감표현과 파트너에 대한 신뢰가 낮고 친밀감을 불편해 하였다. 그리고 현재 연인과 갈등이 있는 집단은 공격행동과 집착 점수가 높았다. 또한 이 척도는

애착의 두 차원과도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는데, 보살핌과 친밀감불편은 회피차원과, 긴장·위축은 불안차원과 상관이 높게 나타나 피검사자의 애정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장재홍, 2006). 하지만, 이 검사는 미혼인 연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부관계에 대한 것은 아니다.

연인관계와 결혼관계는 친밀감과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행동들에서 공통성과 함께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서로에 대한 이해, 보살핌, 애정표현, 공격행동 등은, 표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애정을 촉진/방해하는 공통적인 요소일 것이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연인관계에 비하면, 세계 자녀양육과 집안일 등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상호동의/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래서 관계에서의 호소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Annie, Kristen과 Brian(2009)는 결혼 전 연인, 동거 커플, 부부 간의 호소문제를 상호 비교하였는데, 결혼 전 연인들은 관계의 안정성 문제를 더 호소한 반면, 동거 커플과 부부는 성문제, 갈등의 해결에 대해 더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는 다른 집단들에 비해 애정표현/거리두기에 대한 호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권희경 등(2005)의 애정관계행동척도에서 긴장·위축, 친밀감불편 등은 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이슈로 연인관계에서는 적절하나 부부관계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부부관계는 미혼의 연인들처럼 불편하다고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갈등과 의견 불일치상황에서 보여지는 부부간의 행동들이 결혼만족과 행복감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와의 ‘만족스

립지 못한 성관계'는 결혼불만족과 갈등의 원인이 된다. 성관계에 대한 불만족은 성에 대한 전반적 만족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배우자에게 표현하는 행동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성적 만족은 연인관계에서 전반적 만족감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Yucel & Gassanov, 2010). 하지만 부부관계에서의 성행동과 결혼만족간의 관계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 Yucel와 Gassanov(2010)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 성관계의 만족감은 성관계의 빈도 및 전반적 부부만족과 상관이 있다. 또한 그들의 연구에서 배우자의 부정이나 혼자 포르노를 시청하는 것은 결혼만족의 큰 장애요인이었다. 그리고 Dzara(2010)에 따르면, 부부간의 성적 만족은 부부해체에 영향력이 작았지만, 결혼초기 남편의 신체적 친밀감에 대한 만족이 이후 그 부부가 결혼과정을 맞을지 아닐지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과도한 요구’와 ‘거리두기’ 또한 결혼불만족과 연관이 높은 부부의 행동이다. 이 두 행동은 주로 갈등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요구는 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변화를 요구할 때 발생하는 반면, 거리를 두고 철수를 하는 행동은 한 배우자가 문제가 되고 있는 주제를 피하고자 할 때 발생한다. 그리고 요구와 철수행동은 만족스런 부부에서도 발생하지만, 불화가 있는 부부에서 더 자주 발생하며(Christensen & Shenk, 1991), 시간에 지속되면서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감소(Heavey, Christensen & Malamuth, 1995)하게 되며, 배우자에 대한 학대와 연관(Jacobson & Gottman, 1999)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제’는 부부갈등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해결의 방법으로 자신이 문제해결 방법의

주도권을 쥐고 배우자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Madden, Janoff와 Bulman(1980) 그리고 Wheeler, Updegraff와 Thayer(2010)에 따르면, 이러한 배우자의 행동은 결혼만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Broucke, Vandereycken과 Vertommen(1995)은 부부의 친밀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진정성(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자기가 되는 능력)이 잘 발휘될 수 있어야 하는데, 통제는 배우자의 진정성이 발휘되는 것을 가로막아 생활의 만족과 결혼만족을 떨어뜨린다고 하였다.

이러한 개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애정을 촉진/방해하는 다양한 부부행동들을 측정하고자 한다. 부부애정 행동에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들을 포함시키고, 긍정적 행동들로는 ‘애정표현’, ‘지지하고 보살피는 행동’, ‘신뢰하는 태도와 행동’ 목록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부정적 행동들은 애정을 퇴보시키는 행동적 범주들로 ‘비난 공격행동’, ‘과도한 요구’, ‘통제와 간섭’, ‘성적 회피’, ‘거리두기와 철수’를 포함시키고자 한다.

또한 연구자는 이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결혼불만족도 및 사랑의 삼각형 척도와의 관련성을 검증할 것이다. 결혼불만족은 결혼에서 경험되는 전반적 불만족을 의미하며 사랑의 삼각형 척도는 다양한 연인관계에서 사랑과 친밀감의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이다. 마지막으로 부부 애정행동 척도가 검사할 수 행한 사람의 결혼불만족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지각하는 결혼불만족, 그리고 배우자가 지각하는 사랑 및 친밀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부부 한쪽의 행동과 상대방의 결혼불만족 및 애정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 척도의 유용성과 타당성을 드러낼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부부애정행동 척도를 개발하고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한다.

연구문제 2. 부부애정행동 척도가 남녀별, 결혼기간별, 연령별,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연구문제 3. 부부애정행동 척도의 공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부불만족, 사랑의 삼각형 척도와의 관계를 검증한다.

방 법

연구대상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면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60세 이하의 기혼자들을 참여자로 하였다.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년간, 일반회사, 공무원, 대학원생 중 기혼자, 중등학교 및 대학의 학부모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상담소에 부부갈등을 주호소로 방문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했으며, 총 42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420명의 자료들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무응답이 많은 사례 34명의 자료는 제외하고 남자 145명, 여자 241명, 전체 386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령범위는 28세부터 59세로 평균연령은 40.5세였으며, 결혼기간의 범위는 6개월에서 34년이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포는 표 1과 같다.

질문지의 구성 및 절차

우선 예비문항의 구성을 위하여 부부 애정의 증진과 퇴보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적 범주들을 연구자가 가설적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애정을 발전시키는 행동적 범주들은 ‘애정 표현’, ‘지지하고 보살피는 행동’, ‘신뢰하는 태도와 행동’이라고 정했다. 그리고 애정을 퇴보시키는 행동적 범주들은 ‘공격행동’, ‘과도한 요구’, ‘통제와 간섭’, ‘성적 회피’, ‘거리두기’라 정했다. 이러한 행동적 범주들은 국내에서 개발된 미혼 남녀의 애정관계 행동척도(권희경, 장재홍, 권영민, 2005)와 Broderick(1981)의 부부 일일 활동 체크리스트(Daily Checklist of Marital Activities: DCMA), Frosch와 Mangelsdorf (1998)의 ‘부부행동 관찰측정치(Observational

표 1. 연구참여자의 배경정보(%)

여자 (n=241)			남자(n=145)		
연령대 빈도(비율)	학력 빈도(비율)	결혼기간 빈도(비율)	연령대 빈도(비율)	학력 빈도(비율)	결혼기간 빈도(비율)
20대 3(1.3)	고졸 61(28.2)	3년이하 7(3.5)	20대 1(0.4)	고졸 20(15.8)	3년이하 5(3.0)
30대 95(42.0)	전문대졸 4(1.9)	3-10년이하 61(30.8)	30대 59(41.3)	전문대졸 2(1.7)	3년-10년이하 53(35.6)
40대 101(44.7)	대졸 120(55.5)	10-20년이하 87(43.9)	40대 60(42.0)	대졸 (62.9)	10년-20년이하 62(43.2)
50대 27(12.0)	대학원졸 31(14.4)	20년이상 44(21.7)	50대 25(16.7)	대학원졸 25(19.7)	20년이상 26(18.2)

Measures of Marital Behavior: OMMB)’를 참고하였다.

우리나라 부부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부 애정 행동목록을 수집하기 위하여, 현재 안정적 관계에 있는 부부 2쌍과 갈등관계에 있는 부부 2쌍에 대해 반구조화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잠정적으로 구성한 부부행동 범주들을 중심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일상행동을 적도록 하였다. 가령, “관계를 더욱 안좋게 하였던 비난공격 행동에는 어떤 행동들이 있었습니까?” 혹은 “관계를 더욱 좋게 하였던 지지행동들에는 어떤 행동이 있었습니까?”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서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행동목록에 더하여 국내 부부에서 관찰되는 행동목록들을 추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의 반응들과 부부 상담 자료에서 나온 부부반응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국내 애정 관계 행동척도와 DCMA 및 OMMB의 문항을 참고하여 연구자는 8개의 행동범주에 대해 총 80문항의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예비문항으로 작성된 80문항들에 대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예비문항들이 사용하기 적절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문항들이 행동범주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문항내용이 이해가능하고 어색함이 없는지 상담 전문가 2명에게 평가하도록 하였다. 상담전문가 2명은 부부상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각 문항에 실제 반응해보면서 문항이해도, 행동범주와의 적합성을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문항에 대한 조사를 통해 행동범주와의 적합도가 떨어지는 16개 문항을 제외하였고, 10개 문항은 내용을 보다 매끄럽게 다듬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유목별로 8문항씩 총 64개의 문항을 선정하였고 이

를 조사대상의 설문에 사용하였다.

측정 도구

부부 애정행동 척도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로, 기혼자들의 애정상태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동들을 측정한다. 결혼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행동들을 중심으로, 본인의 행동을 인지하여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긍정적인 행동적 범주들로는 애정표현, 지지 및 보살핌, 애정신뢰이며, 부정적 요인들로는 공격행동, 성적 회피, 과도한 요구, 통제, 및 거리두기 행동이다. 예비문항 64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문항양호도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43개 문항이 선정되었다. Likert 식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거의 그렇지 않다, 3점 조금 그렇다, 4점 꽤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행동들의 점수는 더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되며, 부정적 요인들의 점수는 더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결혼 만족도 검사

부부의 결혼만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nyder(1997)가 개발한 부부 만족 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를 권정혜와 채규만(1999)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척도 중 전반적 불만족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총 22개의 문항으로 반응은 예와 아니오의 형식이다. 부부관계에 대한 불만족과 불행감을 반영하고, 타인과의 부정적인 비교,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와 별거 또는 이혼에 대한 심각한 고려들을 나타낸다. 권정혜와 채규만(2002)에 따르면 이 요인의 점수는

임상적 개입에 대한 초기반응이나 장기적 반응을 예측할 수 있게 하며, 다른 요인들보다 전반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느낌이나 태도를 반영하는 측정치이다.

사랑의 삼각형 척도

부부관계의 사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바탕으로 Sternberg(1990)가 개발한 사랑의 삼각형 척도를 권석만(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애정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파트너에 대한 사랑의 태도를 친밀감, 열정, 투신의 3 영역에서 측정하고 있다. 요소별로 15문항씩 구성되어 총 45문항이며, 9점 척도로 반응하게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그 요소의 수준이 높은 것이다.

결 과

최종 문항의 선별

64개의 예비문항들에 대해 문항양호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문항을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문항양호도를 통한 문항선정의 기준은 첫째, 분포도가 극심하게 편포된 문항 예를 들어, 문항평균 값이 2점 이하이거나 혹은 4점 이상인 경우, 둘째 신뢰도검사를 실시했을 때 문항-총점 간 상관이 .40 이하로 낮거나 문항을 제거했을 때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우, 셋째 문항내용이 다른 문항들과 유사한 문항들은 우선 제외하였다.

이와 더불어 64개 예비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 - 주축요인법(Principal axis factoring)

Oblimin 회전방식 - 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eigen 값이 1이상인 요인은 11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11개 요인의 설명변량은 52.4%였다. 각 문항들의 총점과의 상관과 공통성 값을 산출하여 총점과의 상관이 .40이하이거나 공통성 값이 .40이하인 문항은 우선적으로 제거하였다. 또한 여러 요인들에 동시에 부하되는 문항은 내용 측면에서 모호하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64개 예비문항들에 대한 문항 양호도 결과를 표 2에서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애정표현'의 예비문항 8문항 중 18번 문항은 총점과의 상관이 .38로 낮아 제외하였다. 따라서 애정표현 요인은 7문항으로 구성되며, 내적 합치도는 .899 였다. '과도한 요구'의 예비문항 8문항 중 38번 문항은 총점과의 상관이 .35로 낮아 제외하였고, 7번, 23번 문항은 요인분석 결과 설명변량이 너무 작아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과도한 요구 요인은 5문항으로 구성되며, 내적 합치도는 .777 였다. '성적회피'의 예비문항 8문항 중 32번 문항은 평균이 1.92로 편포되어 문항 변별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제외하였다. 따라서 성적회피 요인은 7문항으로 구성되며, 내적 합치도는 .867 였다. '통제행동'의 예비문항 8문항 중 39번, 60번은 총점과의 상관이 .13으로 낮아 제외하였다. 6번, 22번은 요인분석결과 통제요인으로 묶이지 않고 2문항의 단독요인으로 묶였는데, 내용적으로 통제보다는 질투에 가까워 제외하였다. 따라서 통제행동 요인은 4문항으로 구성되며, 내적 합치도는 .647 였다.

'거리두기'의 8문항 중 28번, 62번, 52번, 41번 문항은 총점과의 상관이 낮아 제외하였다. 따라서 거리두기는 4문항으로 구성되며, 내적 합치도는 .711 였다. '공격행동'의 8문항 중 63

번, 34번 문항은 총점과의 상관이 낮아 제외하였다. 21번과 29번 문항은 문항 평균이 2점 이하지만 이 문항들에서의 높은 점수가 부부 공격행동의 심각도를 잘 표현한다고 보고 최

종 문항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공격행동은 6 문항으로 구성되며, 내적 합치도는 .802 였다. ‘지지·보살핌’의 8문항 중 37번은 총점과의 상관이 낮아 제외하였고, 25번 문항은 애정신

표 2. 부부 애정행동 척도의 문항별 특성

요인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총점과의 상관	중다 상관자승	제외시 신뢰도	제외문항/제외시 Cronbach's alpha
애정 표현	58. 그에게 크던 작던 사랑과 애정을 표현한다.	3.28	.98	.80	.69	.85	18번 / .899
	10. 그에 대한 좋은 감정, 느낌을 표현하지 않는 편이다.*	3.44	1.00	.73	.55	.86	
	42. 그의 장점이거나 좋은 모습에 대해 칭찬하고 좋다고 한다.	3.50	.85	.68	.48	.86	
	26. 그에 대한 배려와 애정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한다.	3.29	.90	.67	.47	.86	
	50. 그의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한다.	3.64	1.03	.65	.47	.87	
	2. 그에게 애정 어린 마음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편이다.	3.38	.98	.72	.54	.86	
	57. 그를 꽤 아끼고 챙기는 편이다.	3.54	.85	.60	.43	.87	
	18. 그에 대한 감사함이나 긍정적인 마음을 속으로만 생각한다.*	2.96	1.05	.38	.21	.89	
과도한 요구	15. 그가 지금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들어주기를 바란다.	3.07	1.04	.53	.32	.76	7, 38, 23번 / .777
	47. 주변에서는 그가 잘한다고 하지만 나는 만족스럽지 않다.	2.50	.98	.51	.38	.76	
	61. 그에게 쉽게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난다	2.51	1.02	.58	.41	.75	
	55. 그가 나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아서 자주 싸움이 있다.	2.42	.99	.60	.40	.75	
	31. 그는 내가 잔소리와 요구가 많다고 한다.	2.40	1.06	.50	.28	.76	
	7. 그에게 어떤 것을 계속 요구하는 입장이다.	2.86	.99	.45	.26	.77	
	38. 내 맘에 들지 않는 그의 특성을 바꾸려고 한다.	2.85	.90	.35	.18	.78	
성적 회피	23. 그가 나의 결핍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를 바란다.	3.07	.99	.44	.23	.77	32번 / .867
	16. 성관계가 부담스러워 핑계를 대어 피하는 편이다.	2.23	1.01	.66	.53	.84	
	40. 성관계를 피해서 그의 불만을 듣거나 싸운 적이 있다.	2.10	1.02	.57	.45	.85	
	8. 그와의 성생활이 부담되거나 긴장을 느낀다.	2.30	.96	.57	.36	.85	
	56. 그와의 성관계에 대한 흥미나 열정이 거의 없다.	2.37	1.03	.72	.54	.84	
	48. 그와 성관계를 즐기는데 거리낌이 없다.*	2.39	.98	.63	.46	.85	
	24. 그와 성관계를 할 때 좋은 느낌을 갖는다.*	2.29	.85	.67	.54	.84	
통제 행동	64. 그와의 성생활에서 거의 애정을 느끼지 못한다.	2.04	.95	.67	.54	.84	6, 60, 22, 39번 / .647
	32. 그와 성관계를 한 전 후로 초라하거나 허탈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	1.92	.85	.48	.29	.86	
	54. 그가 못 미더워 자꾸 신경 쓰고 집착한다.	1.98	.78	.46	.26	.63	
	46. 그의 말이나 행동이 믿기지 않아 추궁한다.	2.13	.91	.44	.24	.64	
	14. 그의 시간스케줄이나 일과를 자주 체크하고 신경을 쓴다.	2.26	.93	.46	.27	.63	
	30. 그가 어떤 친구나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확인하려고 하거나 통제한다.	2.00	.94	.48	.29	.63	
	6. 그를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2.84	1.03	.41	.37	.64	
통제 행동	60. 그와 떨어져서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2.14	.93	.13	.23	.71	
	22. 그의 관심이 우리 관계이외의 다른 관계로 쏠리면 질투가 생긴다.	2.33	.98	.48	.31	.62	
	39. 내가 원하는 것을 그가 일단은 받아주길 바란다.	3.67	.73	.13	.03	.70	

* 역채점 문항임.

표 2. 부부 애정행동 척도의 문항별 특성

(계속)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총점과의 상관	중다 상관자승	제외시 신뢰도	제외문항/제외시 Cronbach's alpha
거리 두기	44. 스트레스로 힘들때, 그와 얘기하기보다는 혼자있는 것이 좋다.	2.83	1.09	.49	.36	.58	28, 62, 41, 52 번 /711
	20. 그에게 앞으로 나의 소망, 계획, 기대를 잘 얘기한다.*	2.43	.97	.48	.33	.59	
	12. 그에게 나의 일과나 일상적 경험들을 얘기하지 않는다.	2.37	1.02	.52	.30	.58	
	4. 주말이나 여가 때 배우자와 함께 있기보다는 주로 내 일이나 취미생활을 한다.	2.39	1.08	.46	.24	.59	
	28. 그에게 의지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2.18	.91	.34	.16	.63	
	62. 내가 그에게 많이 배어 있는 것 같다.	3.31	1.09	-.12	.06	.74	
	41. 그가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을 거의 못해 주고 있다.	2.36	.89	.42	.20	.61	
	52. 나는 그와 취미, 관심사 등의 무언가를 공유하고 싶어 한다.*	2.83	.93	.30	.12	.63	
공격 행동	13. 그에게 고통치거나 소리친다.	2.12	.98	.68	.51	.64	63, 34번 /802
	21. 그가 약속을 어기거나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한다.	1.99	.98	.57	.39	.67	
	29. 싸울 때는 물건을 던지거나 그를 때리는 공격행동을 한다.	1.43	.79	.46	.29	.69	
	5. 화가 날 때 말이 많아지면서 배우자를 몰아세운다.	2.82	1.08	.50	.36	.68	
	53. 그가 맘에 안들어도 바로 비난, 불평하지 않는다.*	2.58	.90	.44	.28	.70	
	45. 그의 부정적 감정을 자극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	2.28	.91	.53	.30	.68	
	63. 그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아도 나는 성관계를 시도한다.	2.28	.99	.04	.02	.77	
	34. 어떻게 애정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2.33	.83	.20	.09	.74	
지지 보살핌	9. 그가 어려울 때 뭐든 도우려고 한다.	3.89	.81	.53	.32	.74	25, 37번 /787
	17. 표정이 우울할 때 무엇이 힘든지 알아보려고 한다.	3.77	.83	.55	.35	.73	
	1. 그가 아플 때 전화하거나 곁에 있어주려고 한다.	3.90	.85	.54	.32	.73	
	3. 그의 말을 대체로 믿고 따르는 편이다.	4.11	.80	.56	.33	.73	
	33. 그를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편이다.	3.66	.89	.57	.36	.73	
	49. 그가 힘든 것을 얘기할 때 부담을 느껴 피하는 편이다.*	3.93	.89	.43	.21	.75	
	25. 그의 좋은 일에 대해 같이 기뻐하거나 축하해주는 편이다.	4.18	.69	.61	.39	.73	
	37. 그가 실수하거나 정해진 바를 어겨도 나는 그냥 넘어가는 편이다.	3.34	.87	.06	.02	.81	
애정 신뢰	19. 그는 여러 면에서 나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	3.67	.80	.53	.33	.71	35, 36, 43, 59 번 /805
	51. 그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3.82	.84	.66	.52	.69	
	27. 그는 나를 좋아하며 사랑한다고 믿는다.	3.99	.85	.72	.62	.67	
	11. 그와 같이 있을 때에도 그의 마음이 나에게 있지않는 것 같다.*	3.90	.91	.56	.36	.70	
	35. 나와 그가 쌓아온 부부관계는 어떤 다른 관계보다도 안정되고 신뢰롭다.	3.77	.88	.61	.49	.69	
	36. 나는 그에게 도움이나 협조를 구체적으로 구하기도 한다.	3.62	.90	.39	.36	.74	
	43.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자주 확인하고 싶다.*	3.29	.94	-.15	.14	.83	
	59. 그를 믿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4.10	.79	.44	.23	.73	

* 역채점 문항임.

주. 전체 문항들에 대한 Cronbach's α 는 .857 임.

리, 애정표현, 공격행동 요인들에 함께 묶이고 문항으로 구성되며, 내적 합치도는 .787 였다. 있어 제외하였다. 따라서 지지보살핌 요인은 6 마지막으로 ‘애정신뢰’의 예비문항 8문항 중

36번, 43번 문항은 총점과의 상관이 낮아 제외하였고, 59번 문항은 평균이 높게 편포되어서, 그리고 35번 문항은 거리두기, 통제행동, 과도한 요구 등 다양한 요인들에 함께 묶이고 있어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애정신뢰 요인은 4 문항으로 구성되며, 내적 합치도는 .805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예비문항 64문항에 대한 문항 양호도와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43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부부 애정행동 척도의 요인구조

본 척도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애정행동 척도의 43개 문항에 대하여 주축요인법(Principal axis factoring) Oblimin 회전방식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KMO (Kaiser-Meyer-Olkin Measure)가 .923이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 $\chi^2 = 7807.21$ ($p < .001$)로 본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igen 값이 1이상인 요인들을 추출한 결과, 9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총 52.27%의 설명변량을 나타냈다.

총 9개의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요인은 회전 제공합 적재값은 8.10이고 총 7개의 문항들로 묶이었다. 57번 문항은 ‘그를 꽤 아끼고 챙기는 편이다’로 원래 지지·보살핌의 문항으로 고려되었으나 1요인에 묶이었다. 이것은 문항의 정서적 함의가 부부의 애정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포함시켰다. 각 문항들은 애정과 사랑을 언어적으로나 행동적으로 표현하는 정도를 반영하는 내용이었으며, 이를 ‘애정표현’이라 명명하였다. 2요인은 회전 제공합 적재값은 4.57,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배우자에 대한 언어적 비난에서부터 신체

적 공격에 이르는 공격적 행동을 반영하는 문항들로 묶이었고, 이를 ‘공격행동’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3요인은 회전 제공합 적재값은 5.48이고, 총 4개의 문항으로 묶이었다. 각 문항들은 성관계를 회피하거나 부담스럽고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의 내용이므로 ‘성적 회피’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4요인은 회전 제공합 적재값은 2.75이고 총 4개의 문항으로 묶이었다. 각 문항들은 배우자의 일상사에 대한 자신의 간섭과 통제들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통제’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5요인은 회전 제공합 적재값은 2.73이었고, 총 4개의 문항이 묶이었다. 각 문항은 배우자와 같이 있기보다는 혼자 있으려고 하고 스트레스나 일상사를 얘기하지 않는 경향성을 측정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이를 ‘거리두기’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그리고 6요인은 회전 제공합 적재값은 3.37이었고 3개의 문항만 묶이었다. 측정하는 내용은 성생활에서 긍정적인 느낌을 갖는 정도를 재는 내용이지만, 이 3개 문항에 대하여는 요인명칭을 따로 부여하지 않고, 요인 3의 ‘성적 회피’ 요인에 합하였다. 왜냐하면 24번, 64번, 48번 문항은 6요인으로 묶이긴 했지만 앞의 3요인과의 상관이 각각 -.529, .536, -.531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3요인에 합하는 것도 부부의 성적 행동과 태도를 측정하기에 거의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7요인은 회전 제공합 적재값은 5.40이고, 총 6개의 문항으로 묶이었다. 각 문항은 배우자가 어려울 때 도우려고 하고 배우자를 보살피고 챙기는 행동들로 구성되어서 이를 ‘지지 및 보살핌’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8요인은 회전 제공합 적재값은 5.58이고 총 5개의 문항

표 3. 부부 애정행동 척도의 요인구조

문항 \ 요인	1. 애정표현	2. 공격행동	3. 성적회피	4. 통제행동	5. 거리두기	6. 성적느낌	7. 지지보살핌	8. 요구하기	9. 애정신뢰
58. 그에게 크던 작던 사랑과 애정을 표현한다.	.882								
10. 그에 대한 좋은 감정, 느낌을 표현하지 않는 편이	-.758								
42. 그의 장점이거나 좋은 모습에 대해 칭찬하고 좋다고	.712								
26. 그에 대한 배려와 애정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한다	.711								
50. 그의 손 잡거나 포옹하는 등, 가벼운 스킨십을 한	.721								
2. 그에게 애정어린 마음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편이	.752								
57. 그를 꽤 아끼고 챙기는 편이다.	.650								
13. 그에게 고향치거나 소리친다.		.764							
21. 그가 약속어기거나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욕설이		.684							
29. 싸울 때는 물건을 던지거나 그를 때리는 공격행동		.644							
5. 화가 날 때 말이 많아지면서 배우자를 몰아세운다		.644							
53. 그가 맘에 안들어도 바로 비난, 불평하지 않는다		-.585							
45. 그의 부정적 감정을 자극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		.500							
16. 성관계가 부담스러워 핑계를 대어 피하는 편이다.			.836						
40. 성관계를 피해서 그의 불만을 듣거나 싸운적이 있			.727						
8. 그와의 성생활이 부담되거나 긴장을 느낀다.			.662						
56. 그와의 성관계에 대한 흥미나 열정이 거의 없다			.633						
54. 그가 못 미더워 자꾸 신경쓰고 집착한다				.659					
46. 그의 말이나 행동이 믿기지 않아 추궁한다.				.505					
14. 그의 시간스케줄이나 일과를 자주 체크하고 신경				.402					
30. 그가 어떤 친구나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확인하려고				.400					
44. 스트레스로 힘들 때, 그와 얘기하기보다는 혼자있					.677				
20. 그에게 앞으로 나의 소망, 계획, 기대를 잘 얘기한					-.551				
12. 그에게 나의 일과나 일상적 경험들을 얘기하지 않					.531				
4. 주말이나 여가 때 배우자와 함께 있기보다는 주로					.462				
24. 그와 성관계를 할 때 좋은 느낌을 갖는다.			-.529			.672			
64. 그와의 성생활에서 거의 애정을 느끼지 못한다.			.536			-.622			
48. 그와 성관계를 즐기는데 거리낌이 없다.			-.531			.564			
9. 그가 어려울 때 뭐든 도우려고 한다.							.620		
17. 표정이 안좋을 때 무엇이 힘든지 알아보려고 한다.							.595		
1. 그가 아플 때 전화하거나 곁에 있어주려고 한다.							.672		
3. 그의 말을 대체로 믿고 따르는 편이다.							.555		
33. 그를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편이다							.534		
49. 그가 힘든 것을 얘기할 때 부담을 느껴 피하는 편							-.488		
15. 그가 지금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들어주기를.								.642	
31. 그는 내가 잔소리와 요구가 많다고 한다								.510	
47. 주변에서는 그가 잘한다고 하지만 나는 만족스럽								.714	
61. 그에게 쉽게 감정이 상하고 화가난다								.639	
55. 그가 나의 바램을 들어주지 않아서 자주 싸움이								.643	
19. 그는 여러 면에서 나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									.649
51. 그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685
27. 그는 나를 좋아하며 사랑한다고 믿는다.									.761
11. 그와 같이 있을 때에도 그의 마음이 나에게 있지									-.535
eigen value	8.10	4.57	5.48	2.75	2.73	3.37	5.40	5.58	5.15
평균(표준편차)	3.44(.74)	2.20(.67)	2.25(.72)	2.01(.62)	2.50(.76)		3.88(.59)	2.57(.74)	3.84(.68)
최소값/최대값	1.14/5.00	1.00/4.67	1.00/4.71	1.00/5.00	1.00/4.75		2.00/5.00	1.00/4.60	1.75/5.00
왜도	-.01	.53	.49	.65	.29		-.48	.22	-.45
첨도	-.42	-.49	.16	1.08	-.42		.32	-.49	.01

주. 성적회피의 평균(표준편차), 최소값/최대값, 왜도, 첨도는 최종 성적회피요인의 값을 제시하였다.

들로 묶이었다. 각 문항들은 자기의 욕구나 바람들을 배우자가 충족해주시기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그것이 안될 때 불만족감과 갈등이 일어나는 정도를 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과도한 요구’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9요인은 회전 제곱합 적재값은 5.15이었고, 총 4개의 문항이 묶이었다. 측정하는 내용은 배우자가 자신을 좋아하고 애정을 갖고 있다고 믿는 정도를 재는 문항들이어서, 이를 ‘애정신뢰’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한편, 표 3에서 나타난 각 요인들의 왜도는 -.48~.65 로 나타났는데, 공격행동, 성적회피, 통제행동은 왼쪽(낮은 점수)으로 다소 기울어진 비대칭을, 반면 지지보살핌과 애정신뢰는 다소 오른쪽(높은 점수)으로 기울어진 비대칭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빈도에 대한 그래프와 첨도 지수로 보았을 때 비교적 적절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을 요약하면 본 척도는 43개의 문항이 총 9개의 요인으로 묶여졌으며, 본 연구의 서론에서 기술한 것처럼 부부의 애정관계에 영향을 주는 8개 차원의 부부 애정행동을 적절히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척도 문항은 내용적으로 볼 때 3개의 긍정적 요인(애정표현, 지지 및 보살핌, 애정신뢰)과 5개의 부정적 요인(과도한 요구, 성적회피, 공격행동, 통제, 거리두기)들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선정된 8요인 43문항을 사용하여 각 문항들이 해당요인에만 부하되도록 하였고, 요인 간에

상관이 존재하며 잔차 간에는 상관이 없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모형 적합도 검증결과는 표 4와 같다. 모형 적합도에는 χ^2 ,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및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홍세희(1999)에 따르면, 좋은 적합도를 가진 모형이 되려면 TLI와 CFI는 .90보다 커야 하며,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5보다 크고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이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모형은 χ^2 는 1181.53이고, 자유도는 824로 적절하였으며, RMSEA는 .058로 괜찮은 적합도를 보였다. 하지만 CFI와 TLI는 .90의 좋은 적합도에 다소 못 미치는 .885, .863이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본 연구모형은 좋은 모형은 아니지만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각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요인 간 상관표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긍정적 요인의 하위요인으로 ‘애정표현’, ‘지지 및 보살핌’, ‘애정신뢰’ 요인들은 서로 .65, .56, .61의 상관을 가짐으로써, 서로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3개의 요인들은 부정적 요인들인 과도요구, 성적회피, 거리두기, 공격행동 및 통제요인과 -.11~-0.59의 유의미한 부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애정표현과 통제요인 간에는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다($r=.04, n.s.$). 또한 부정적 요인의 하위 요인들, 과도요구, 성적회피, 통제, 거리두기 및 공격행동 간의

표 4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적합도 지수	χ^2	df	p	CFI	TLI	RMSEA
연구모형	1181.53	824	.000	.885	.863	.058

표 5. 부부 애정행동 척도의 요인 간 상관표

	애정 표현	과도 요구	성적 회피	통제	거리 두기	공격 행동	지지 보살핌
과도요구	-.42***						
성적회피	-.59***	.40***					
통제	.04	.41***	.11*				
거리두기	-.52***	.37***	.36***	-.05			
공격행동	-.29***	.60***	.33***	.47***	.21***		
지지보살핌	.65***	-.49***	-.52***	-.11*	-.49***	-.40***	
애정신뢰	.56***	-.51***	-.48***	-.24***	-.45***	-.35***	.61***

* $p < .05$ ** $p < .01$ *** $p < .001$

상호상관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상호상관이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리두기’와 ‘통제’ 요인 간 상관은 -.05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결혼기간, 학력에 따른 부부 애정행동 하위요인들의 차이

부부 애정행동 척도 상의 각 요인별 점수에서 남녀별, 연령별, 결혼기간별, 학력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별, 결혼기간에 따른 애정행동 점수의 평균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우선 남녀 간 차이를 살펴보면, 8개요인 중에서 애정표현, 애정신뢰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값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회피, 거리두기, 과도요구는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값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과도한 요구요인에서 50대가 30대, 40대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별로는 20년 이상은 10년 이하와 20년 이하에 비해 과도한 요구는 더 낮고, 지지보살핌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애정행동 척도와 부부불만족 및 사랑척도와의 관계

부부 애정행동 척도가 기존의 부부관계 및 애정의 정도를 측정하는 다른 척도들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결혼만족도 척도의 전반적 불만족, 사랑의 삼각형 척도의 친밀감, 열정, 투신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부 애정행동 척도의 ‘애정표현’ 요인의 점수는 본인의 결혼불만족 점수와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이 나타나는 바, 상관의 크기는 $-.48 (p < .001)$ 이었다. 이것은 본인의 애정표현의 증가는 본인의 결혼불만족의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애정표현 점수는 사랑의 삼각형 척도 3요소, 친밀감, 열정, 투신의 요소와 .67, .66, .57에 이르는 유의미한 높은 상관의 크기를 나타냈다. 이것은 부부 애정행동 척도의 제1요인이 사랑의 3요소와 뚜렷하게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1 요인은 애정행동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표 6. 성별, 연령별, 결혼기간별, 학력별 부부 애정 행동척도 요인들의 평균치 차이분석

		애정표현 M(SD)	통제 M(SD)	성적회피 M(SD)	공격성 M(SD)	거리두기 M(SD)	과도요구 M(SD)	지지,보살핌 M(SD)	애정신뢰 M(SD)
성별	남	3.55 (.73)	1.94 (.66)	2.00 (.61)	2.13 (.66)	2.60 (.73)	2.38 (.72)	3.93 (.55)	3.97 (.64)
	여	3.38 (.75)	2.05 (.60)	2.39 (.74)	2.24 (.67)	2.43 (.77)	2.68 (.73)	3.85 (.60)	3.78 (.69)
	<i>t</i>	2.02*	-1.63	-5.45***	-1.56	3.08*	-3.80***	1.25	2.53*
연령	1. 30대	3.40(.74)	2.03(.63)	2.20(.71)	2.17(.64)	2.53(.76)	2.62(.72)	3.87(.55)	3.85(.64)
	2. 40대	3.42(.76)	2.04(.62)	2.30(.76)	2.25(.70)	2.53(.76)	2.65(.75)	3.83(.60)	3.83(.68)
	3. 50대	3.63(.74)	1.92(.60)	2.23(.67)	2.20(.66)	2.38(.72)	2.24(.65)	4.04(.64)	3.87(.81)
	<i>F</i>	1.89	.66	.78	.55	.79	6.25**	2.48	.06
	<i>Duncan</i>						1,2>3		
결혼 기간	1. 10년이하	3.42(.71)	2.04(.69)	2.28(.73)	2.21(.69)	2.60(.77)	2.69(.77)	3.83(.53)	3.81(.63)
	2. 20년이하	3.37(.78)	2.00(.57)	2.21(.76)	2.20(.66)	2.47(.75)	2.60(.72)	3.84(.62)	3.84(.62)
	3. 20년이상	3.60(.75)	2.00(.64)	2.25(.65)	2.21(.67)	2.45(.76)	2.37(.71)	4.03(.61)	3.87(.75)
	<i>F</i>	2.49	.14	.34	.06	1.35	4.55*	3.44*	.19
	<i>Duncan</i>						1,2>3	3>1,2	
학력	고졸	3.39(.50)	2.43(.53)	2.46(.53)	2.40(.53)	2.37(.34)	2.72(.58)	3.84(.39)	3.75(.62)
	대졸	3.43(.77)	2.46(.69)	2.15(.74)	2.10(.66)	2.40(.42)	2.63(.70)	3.96(.50)	3.88(.65)
	대학원졸	3.61(.74)	2.37(.59)	2.06(.45)	2.10(.58)	2.29(.40)	2.50(.56)	4.09(.53)	3.97(.64)
	<i>F</i>	.21	.48	2.14	2.09	.53	.67	1.45	.78

p*<.05 *p*<.01 ****p*<.001

표 7. 부부애정행동척도의 요인들과 부부불만족, 사랑의 3요소 점수와의 상관표

관련변인	애정행동	애정표현	과도한 요구	성적회피	통제	거리두기	공격행동	보살핌과 지지	애정신뢰	M(SD)
부부 불만족		-.48***	.59***	.45***	.11***	.38***	.40***	-.53***	-.49***	5.30 (5.42)
사랑의 삼각형	친밀감	.67***	-.56***	-.53***	-.10*	-.54***	-.40***	.69***	.67***	6.66 (1.64)
	열정	.66***	-.39***	-.55***	.04	-.42***	-.31***	.54***	.48***	5.16 (1.77)
	투신	.57***	-.46***	-.49***	-.12*	-.39***	-.37***	.62***	.56***	6.91 (1.53)

p*<.05 *p*<.01 ****p*<.001***

다음의 애정행동 요인으로 ‘과도한 요구’의 점수는 본인의 결혼불만족 점수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나타나는 바, 상관의 크기는 .59 ($p < .001$) 이었다. 이것은 본인의 과도한 요구의 증가는 본인의 결혼 불만족과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과도한 요구 점수

는 사랑의 삼각형 척도의 3요소, 친밀감, 열정, 투신의 요소와 -.56, -.36 -.46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냄으로써, 과도한 요구는 애정 행동에 반하는 행동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적 회피’ 요인의 점수도 본인의 결혼불만족 점수와 .45 ($p < .001$)의 정적

상관을 나타냄으로써, 본인의 성적 회피의 증가는 본인의 결혼불만족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적회피 점수는 사랑의 삼각형 척도의 3요소, 친밀감, 열정, 투신의 요소와 .53, .55, .49에 이르는 유의미한 상관을 지닌 바, 성적회피 역시 부부애정에 반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통제’ 요인의 점수도 본인의 결혼불만족 점수와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지만 상관의 크기는 다소 작은 .11 ($p < .001$) 이었다. 이것은 본인의 통제 증가는 본인의 결혼불만족의 증가와 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통제 점수는 사랑의 삼각형 척도의 3요소, 친밀감, 투신과 -.10, -.12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나, 열정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통제는 전반적으로 애정행동에 반하는 행동임이 확인되었지만 그 상관의 정도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두기’와 ‘공격행동’요인도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바, 두 요인 모두 결혼불만족 점수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랑의 3요소들과도 모두 중간 정도의 유의미한 부적 관련성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거리두기’와 ‘공격행동’ 요인도 부부의 애정행동에 반하는 요소라고 확인되었다.

끝으로 긍정적 요인으로 ‘지지 및 보살핌’과 ‘애정신뢰’요인의 점수는 본인의 결혼불만족 점수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사랑의 3요소들의 점수와도 매우 높은 정도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드러냈다. 이것은 이 두 요인의 증가는 본인의 결혼불만족의 감소와 관련됨을 말해주며, 사랑의 3요소인 친밀감, 열정, 투신의 증가와 관련됨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지지 보살핌’과 ‘애정신뢰’요인은 부부의 애정을 증진시키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부부 애정행동 척도의 공존타당도

본 애정행동 척도의 8개 요인의 점수가 배우자의 부부불만족과 사랑의 3요소 점수를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남편 85명과 부인의 85명의 부부쌍($n=170$)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본인의 애정행동 점수와 배우자의 부부불만족 점수, 및 사랑의 3요소 점수들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본인의 애정행동 8개요인 중에서 성적 회피 요인과 통제요인 이외의 6개요인들 모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다.

긍정적 요인인 애정표현, 애정신뢰, 지지 및 보살핌 요인은 부부불만족 점수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나타냈으며, 부정적 요인의 과도한 요구와 거리두기 및 공격행동은 배우자의 부부불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부정적 요인인 통제와 성적 회피 요인은 매우 낮은 상관의 크기를 가짐으로써 어떠한 관련성도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부부 애정행동 척도의 6개요인은 배우자의 부부불만족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인의 애정행동 요인과 배우자의 사랑의 삼각형 3요소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애정행동의 8요인들 중에서 긍정요인들-본인의 애정표현, 지지 및 보살핌, 그리고 애정신뢰 요인-은 배우자의 사랑의 3요소, 친밀감, 열정, 투신의 점수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것은 본인의 긍정적인 애정행동의 증가는 배우자가 느끼는 친밀감, 열정, 그리고 투신의 증가와 관련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애정행동 척도의 부정적 요인들 중 본인의 ‘거리두기’는 배우자의 친밀감, 열정, 투신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과도한 요

표 8. 본인의 애정행동요인과 배우자의 부부불만족 및 사랑의 3요인간의 상관(N=170)

	애정표현	과도요구	성적회피	통제	거리두기	공격행동	보살핌과 지지	애정신뢰	M(SD)
배우자의 부부불만족	-.32***	.33***	.05	.11	.27***	.23***	-.28***	-.22**	4.47 (5.02)
사랑의 삼각형									
친밀감	.37***	-.33***	-.12	-.09	-.37***	-.14*	.40***	.37***	6.68 (1.52)
열정	.23**	-.10	-.01	.02	-.35***	-.06	.34***	.28***	5.41 (1.61)
투신	.26**	-.16	.01	-.09	-.36***	.04	.29***	.26**	7.23 (1.34)
M(SD)	3.54 (.70)	2.58 (.76)	2.15 (.64)	2.03 (.64)	2.45 (.74)	2.19 (.65)	3.93 (.54)	3.91 (.67)	

* $p < .05$ ** $p < .01$ *** $p < .001$

구'와 '공격성'-본인이 배우자에게 과도하게 요구하고 공격행동을 하는 것-은 배우자 친밀감 경험과 부적상관($r = -.33, p < .001, r = -.14, p < .05$)을 나타냈다. 이것은 본인이 과도한 요구와 공격을 하는 행동과 배우자의 친밀감이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 요인들의 다른 요인들-통제, 요구하기, 성적회피-는 배우자의 사랑의 3요소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부부의 애정관계를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행동들을 측정하는 부부 애정행동 척도(Marital Affection Behavior Scale)를 개발하고 이 척도의 심리측정적 성질과 타당도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우선 애정행동을 측정한 기존연구(권희경 등, 2005; Broderick, 1981; Frosch & Mangelsdorf, 1998)들과 부부를 단위로 한 면담을 토대로 하여 8개의 행동적

요인을 정하고, 각 요인에 대한 예비문항 80개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80문항에 대한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서 최종 64개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와 문항 양호도 분석 절차를 거쳐서 총 43개의 문항을 연구에 사용할 최종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를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자가 가정하였던 8개 요인이 적절하게 추출되었으며, 이들 요인에 대해 문항들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 - 애정표현, 과도한 요구, 성적회피, 공격행동, 통제, 거리두기, 보살핌 및 지지 그리고 애정신뢰 - 을 부여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로 볼 때, 본 척도의 8개의 요인은 부부의 애정관계를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들을 포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은 아니지만 비교적 수용할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 척도의 요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

보면, 전반적으로 8개 요인들은 서로 적절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정표현’, ‘지지 및 보살핌’, 그리고 ‘애정신뢰’ 요인들은 애정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요인들로 서로 적절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과도요구’, ‘성적 회피’, ‘거리두기’, ‘공격성’, 그리고 ‘통제’ 요인들은 애정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인들로 역시 서로 적절하게 정적상관을 지니고 있었다.

셋째, 부부 애정행동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의 확인을 위하여 부부애정과 관련된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결혼 불만족 점수와 본 척도의 긍정적 요인들(애정표현, 지지 및 보살핌, 애정신뢰)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부정적 요인들(과도한 요구, 성적 회피, 통제, 거리두기, 공격행동)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지녔다. 이것은 긍정적인 애정행동의 증가는 결혼 불만족의 감소와 관련되며, 부정적 행동의 증가는 결혼불만족의 증가와 관련됨을 말해준다. 또한 사랑의 삼각형 척도의 친밀감, 열정, 투신의 점수와 본 척도의 8개 요인들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사랑의 3요소의 점수들은 본 척도의 긍정적 요인들(애정표현, 지지 및 보살핌, 애정신뢰)과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부정적 요인들(과도한 요구, 성적 회피, 통제, 거리두기, 공격행동)과는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이것은 부부 애정행동 척도가 일반적인 사랑의 요소들을 잘 포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본 애정행동 척도의 점수와 배우자의 결혼만족도 및 사랑의 3요소의 점수들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자기 자신의 애정행동 요인들 중에서 긍정적인 요인들은 상대방의 결혼불만족과 부적상관을, 그리고 사랑의 3요소 점수들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애정행동의 부정적인 요인들은 배우자의

결혼불만족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그리고 사랑의 3요소들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연구들(Fincham, Beach, & Kemp-Fincham, 1997; Fincham, & Linfield, 1997; Johnson, White, Edwards, & Booth, 1986)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본인의 거리두기 행동은 배우자의 결혼불만족, 사랑의 3요소들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는데, 거리를 두고 철수하는 행동이 불화가 있는 부부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는 Christensen과 Shenk (1991)의 보고,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감소한다는 Heavey 등(1995)의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성적 회피는 자신의 결혼불만족과는 상관이 있으나 배우자의 결혼불만족과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성관계의 만족감이 자신의 부부만족과 상관이 있다는 Yucel와 Gassanov(2010)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통제와 성적회피는 본인의 부부만족과 부적상관이 있는 요소였지만, 배우자의 부부불만족 및 사랑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부부관계에서 통제를 ‘관심’의 한 요소로, 그리고 성관계의 표현을 터부시 하는 면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그 의미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2요인에 대한 후속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부부의 애정행동을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행동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측정하려고 시도하였으며, 평정자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는데 의의가 있었다. 특히 부부 애정행동 척도는 배우자의 결혼불만족, 그리고 사랑의 요소와도 적절한 상관을 보여 본인의 불만족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애정 및 불만족을 예측하였다는 점에서

타당도가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눈덩이 표집방법으로 부부를 선별하였고 서울, 경기도 지역에 한정된 표본이었다. 그리고 직업과 나이 면에서도 30, 40대가 중심이었고, 학력도 전문대, 대졸이 다수로 편포되어 있어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둘째, 비록 상담전문가의 자문과 실제 부부에 대한 면접을 토대로 가장 대표적인 부부행동 문항을 구성하였지만, 이것이 부부행동을 대표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와 면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 검사는 단순히 부부의 애정행동만을 본 것으로 부부행동의 여러 영역들, 예를 들어 자녀양육과 친족 간의 관계와 갈등 등은 행동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것은 부부의 양자관계를 두 사람간의 관계로만 단순화를 시도한 것인데, 중요한 부부관계의 요소들이 함께 포함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넷째, 본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모델 적합도는 부분적으로만 확인되었다. 아마도 척도에 많은 요인들이 포함된 결과로 보여 지는데 보다 많은 사례수를 대상으로 이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재검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 하겠다.

참고문헌

권석만 (1997).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 심리학. 학지사.
권윤아, 김득성 (2008).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척도 개발 - Gottman의 네 기수 개념을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46(6), 101-113.

권정혜, 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23-139.
권희경, 장재홍, 권영민 (2005). 애정관계 행동척도의 개발과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4), 497-524.
김광은 (2005). 성인 애착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및 부부 갈등 대처 전략.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707-734.
김진숙 (2011). 부부 불만족 지각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2), 179-196.
김진숙, 권석만 (2009). 부부신념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2), 459-473.
김진숙, 권석만 (2010). 부부갈등 사례에 대한 인지행동적 모델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1), 337-348.
노은여, 권정혜 (1997). 결혼 생활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기혼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II. 자아존중감의 변동성과 남녀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41-54.
이경성, 한덕웅 (2003). 결혼적응검사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3), 679-705.
이경희, 옥선화 (2002). 부부관계유형과 판별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4), 179-199.
이민식, 김중술 (1996). 부부 적응척도의 표준화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5(1), 129-140.
이현수 (2001). 성격과 행동. 학지사.
임승락, 권정혜 (1998). 부부간 의사소통 행동과 결혼생활 만족-성차, 요구입장 차이 및 성격 특성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98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109-123.
장재홍 (2006). 이성교제의 경험, 애정관계 행

- 동 및 성인 애착 차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137-155.
- 장진아, 신희천 (2006).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의 매개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569-592.
- 전영민, 박영숙 (1997). 관계신념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 101-116.
- 정교영, 신희천 (2007). 부부치료의 주요 이론적 접근과 최근 연구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1-30.
- Annie, C. H., Kristen, R. M., & Brian, D. D. (2009). Qualitative reports of problems in cohabiting relationships: Comparisons to Married and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2), 236-264.
- Broderick, J. E. (1981). A method for derivation of areas for assessment in marital relationship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9*, 25-34.
- Brouche, S. V., Vandereycken, W., & Vertommen, H. (1995). Marital intimacy: *Conceptualization and Assessment, 15*(3), 217-233.
- Christensen, A., & Heavey, C. L. (1990). Gender and social structure in the demand/withdraw pattern of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73-81.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 Doss, B. D., Simpson, L. E., & Christensen, A. (2004). Why do couples seek marital therapy?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5*(6), 608-614.
- Dzara, K. (2010). Assessing the effect of marital sexuality on marital disruption. *Social Science Research, 39*, 715-724.
- Fincham, F. D. (1985). Attribution processes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Responsibility for marital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2), 183-190.
- Fincham, F. D., Beach, S. R. H., & Kemp-Fincham, S. I. (1997). Marital quality: A new theoretical perspective. In R. J. Sternberg & M. Hojjat (Eds.) *Satisfaction in close relationships*. New York: Guilford.
- Fincham, F. D., & Linfield, K. J. (1997). A new look at marital quality: Can spouses feel positive and negative about their marriag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4), 489-502.
- Fraenkel, P. (2009). The therapeutic palette: A guide to choice points in integrative couple therapy,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37*, 234-247.
- Gerard, J. M., & Buehler, C. (1999). Multiple risk factors in the family environment and youth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2), 343-361.
- Gottman, J. G., & Krokoff, L. J. (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interac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A longitudinal 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47-52.
- Gottman, J. G., & Levenson, R. W. (1992). Marital processes predictive of later dissolution: Behavior, physiology, and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2), 221-233.
- Havey, C. L., Christensen, A., & Malamuth, N.

- M. (1995). The longitudinal impact of demand and withdrawal during marital conflic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 797-801.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3), 511-524.
- Hohnson, D. R., White, L. K., Edwards, J. N., & Booth, A. (1986). Dimensions of marital quality: Toward methodological and conceptual refinement. *Journal of Family Issues, 7*, 31-49.
- Jacobson, N. D., & Margolin, G. (1979). *Behavioral marital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 Johnson, P. L., & O'Leary, D. (1996). Behavioral components of marital satisfaction: An individualized assessment approa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2), 417-423.
- Kerig, P. K. (1996). Assessing the links between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The conflicts and problem-solving scal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4), 454-473.
- Lee, J. A. (1973). *The colors of love: An exploration of the ways of loving*. Don Mills, Ontario New Press.
- Markman, H. J. (1981). The prediction of marital distress: a five year follow up.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 760-762.
- Maxwell, G. M. (1985). Behavior of lovers: measuring the closeness of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 215-238.
- Rubin, L. B. (1983). *Intimate strangers: Men and woman together*. New York: Harper & Row.
- Rubin, Z. (1973). *Liking and loving: An invitation to social psycholog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Rubin, Z., Peplau, L. A., & Hill, C. T. (1981). Loving and leaving: Sex differences in romantic attachment. *Sex Roles, 7*, 821-835.
-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 North Tonawanda, NY: Multi-Health Systems, Inc.
- Sternberg, R. J. (1986). A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93*, 119-135.
- Snyder, D. K. (1979).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anual*.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Wheeler, L. A., Updegraff, K. A., & Thayer, S. M. (2010). Conflict resolution in Mexican-origin couples. *Culture, Gender, and Marital Quality, 72*(4), 991-1005.
- Weiss, R. L., & Summers, K. J. (1983). Marital Interaction Coding System-III. In E. Filsinger (Ed.), *Marriage and family assessment*. Beverly Hills, CA: Sage.
- Wills, T. A., Weiss, R. L., & Patterson, G. R. (1974). A behavioral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802-811.
- Yucel, D., & Gassanov, M. A. (2010). Exploring actor and partner correlates of sexual satisfaction among married couples, *Social Science Research, 39*, 725-738.

1 차원고접수 : 2011. 10. 28.

심사통과접수 : 2011. 12. 6.

최종원고접수 : 2011. 12. 15.

Development and Validity of Marital Affection Behavior Scale(MABS)

Jae-Hong Jang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develop the Marital Affection Behavior Scale(MABS) and to validate the scale. The preliminary study for selecting items was executed. And 64 preliminary items were selected. Item analysi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ere executed to 145 married men and 241 married women who were from 20s to 50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43 items were selected.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for 43 items indicated the existence of eight factors, explaining 52.27 percent of total variance. 8 factors were affection expression, supporting and caring, affection trust, withdrawal, avoidance of sexual relationship, aggressive behavior, demanding behavior, and control. Second, the reliabilities of 8 factors ranged from .64 to .89. Third, MABS was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MAI(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and TSL(Triangel Scale of Love). Forth, their own MABS was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their spouse's MAI and TSL, except avoidance of sexual relationship and control.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MABS was an useful instrument to assess marital relationship behaviors. The advantages and limits of MABS was discussed.

Key words : Marital Affection Behavior, Marital Satisfaction, Romantic Triangel Scale.